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2001년도 표어 ☉

임하소서 성령이여(행1:8)

☉ 행동지침 ☉

- 1. 부흥과 성장이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한다.
- 2. 민족과 국가를 위해 기도한다.
- 3. 일치와 증거가 있는 삶을 산다.
- 4. 내가 먼저 변하고 세상을 변화시킨다.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 2001년 사명자대회 임박하다

### -태신자를 품고 기도해 몰두할 때-

우리교회는 1991년 교회 설립에 앞서 7주간의 특별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며 마루를 적시었고, 기도를 시작한 지 50일째 되는 11월 24일에 교회 설립예배를 드린 바 있다. 그 후에도 해마다 교회 설립 기념일 50일 전이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와 전도 운동을 통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재확인하는 사명자 대회를 매년 전개해 왔으며 또한 이 운동을 통해 2020년까지 우리 국민의 75%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되기를 기도해 왔다.

올해도 이와 같은 취지 하에 다음달 7일(주일) 찬양예배 시에 발대식을 갖고 50일간의 기도와 전도운동을 전개한다.

임박한 사명자대회 기간동안 '기도의 파수꾼, 전도의 사도가 되자'라는 표어를 정하고 7대 기도제목과 갖고 중보기도, 다니엘 기도, 말씀읽기, 각 전도회·선교회별 담당 지역전도, 불신가족 이웃초청전도잔치 등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3면을 참조 바란다.)

## 거룩하고 흠이 없는 추석이 되도록

###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는 시간-

민족의 명절이라는 추석이 바로 내일로 다가왔다. 전국은 벌써 명절 분위기로 들뜨고 고향을 찾는 이들은 '제사'라는 이름의 행사를 통해 효도하는 것으로 자위를 한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죽은 이에 대한 제사는 10계명을 위반하는 행위임을 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추석을 전세계에 가뭇과 홍수가 계속되는 이 어려운 때에도 대한민국에 풍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할 것이 차고 넘치는 과분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는 시간으로 바쳐야 할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이번 추석 연휴기간 중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예배의 모범을 순례자 2면에 게재하였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추석날 아침, 만물의 주재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지 않는 친지들에게 모범을 보여 전도하는 기회가 되도록 기도하자.

또한 오가는 길에 개인 윤리에만 치중하지 말고, 어디서든 공공윤리를 지켜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시간이 되도록 한다.

## 안식장로들 만장일치로 신임받다

우리교회 당회는 올해 안식년을 맞아 휴무중인 장로 4인의 재신임 투표를 지난 26일 하였다. 박철훈, 김광신, 오정수, 노문화 장로를 당회 시무도록 만장일치로 가결함으로 우리교회의 새로운 전통을 세우는 경사가 있었다.

또한 부목사 4인의 연임투표도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이성득, 정운돈, 고경선, 이규정 목사를 노회에 연임 청원키로 하였다.

## 새가족 환영회 갖는다

### -찬양예배시에-

가을에 접어드는 9월에도 하나님께서는 많은 생명을 우리에게 인도해 주셨다. 온 교회는 말기신 생명을 양육하는데 큰 관심과 사랑을 갖고 오늘 저녁 찬양 예배시에 9월중에 새로 등록한 성도들을 환영하는 환영회를 갖는다.

9월 새가족 명단  
강윤영 강홍중 권숙미 금성섭 김갑해 김광숙 김만자 김명구 김문조 김병희 김석범 김성욱 김소정 김숙희 김순구 김순혜 김효희 남경희 박금영 박소연 박영권 박인선 박재완 박조현 박진우 방동원 방지혜 배지연 백세욱 백혜운 석상화 석선주 송영의 안춘섭 양용자 오병수 이병서 이소은 이양구 이은희 이재광 이화병 임인선 전장섭 정성기 주현경 천경숙 천미숙 천인숙 최근정 최연희 최은영 최종금 홍성연 (이상 54명) 그리고 오늘 등록하신 분

## 교구별 야유회 갖는다

교회입당과 더불어 10대 행사를 비롯하여 많은 헌신이 요구되어 온 지난 몇달동안의 노고를 기억하고 특히 이번 이웃돕기 바자를 통해 보여준 희생적 봉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 믿고 당회는 교인들을 위로, 격려하는 차원에서 교구별로 가을 야유회를 갖도록 결정하였다. 단풍의 계절에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즐기면서 또 한번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할 것이다.

## 교역자 보충한다.

교인의 증가와 과중한 업무량으로 인해 부목사 2분을 충원키로 했다. 우리 교단 신학교를 졸업하고 안수받은 목사로 청소년 사역의 특별한 은사와 사명이 있는 분을 연말에 청빙키로 했다. 우리교회는 지금까지 교역자 청빙은 공채를 원칙으로 해오고 있다.

### 지난 주 우리교회는



교회 김장 준비 시작되었다  
- 바자를 끝내고 겨울 준비를 시작하는 봉사자들  
매운 고추를 다듬으면서도 즐겁기 만하다

### 이번주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개역개정판 마5:3-6)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Blessed are those who mourn, for they will be comforted. Blessed are the meek, for they will inherit the earth. Blessed are those who hunger and thirst for righteousness, for they will be filled (NIU Mt 5:3-5)

# 추석 가족이 모여 함께 드리는 예배

▼ 이번 주간에는 우리 고유의 명절이라 불리는 추석을 맞게 된다.이 때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할 일이 있다. 조상에 대한 제사의 문제이다 조상숭배 제도는 12세기 중국의 주자(주희)가 만든 성리학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으며 이는 성경적으로 보면 우상숭배요,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의 유교 철학에서 온 외래문화의 유산이며, 철학적으로 보면 과거지향적인 순환적 시간관에 기인된 것이므로 자연주의적 세계관과 평민을 다스리기 위한 사회 정치적 산물이었다. 그러나 우리민족 고유의 미풍양속이라는 말은 오도된 것이며 그리스도인들은 이 일에 대해 바른 자세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한 해의 결실을 감사하며 모처럼 한자리에서 만나는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지게 되는 추석,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일 때 하나님께 예배하며 가족을 주심을 감사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써 진도의 기회를 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여기에 예배모범을 제시한다.▼

## < 예배순서 >

인도: 가족 중 어른

목도-----	다함께
성시-----시편 100:1~5-----	인도자
찬송-----460 장-----	다함께
기도(또는 사도신경)-----	가족 중(다함께)
성경봉독-----고린도후서 9:6~15-----	인도자
메시지-----"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사"-----	인도자
찬송-----312 장-----	다함께
주기도문-----	다함께

## <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사 >

말씀: 고린도후서 9:6~15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흠여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러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라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시니 예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내 안에 거하시며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시고 율법을 따름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하나님께 순종케 하시니 성령님께 감사합니다. 만가지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우리는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 영광스런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 2. 주신 선물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에 사는 우리들을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독생자를 주심은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지며 인간이신 주님의 신비를 표현할 길 없으며, 창조주이신 예수님의 팔구유에 오신 겸손함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만유의 대 주재이신 분이 자기 땅에서 멀시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사 자유와 소망의 길을 여셨으며 천국을 바라보게 하셨으니 그 은혜의 크심을 말로 다할 수 없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베푸심으로 확증된 그 사랑은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자발적인 사랑에 우리의 감사도 억지로 하지 말고, 생명을 바치는 심정으로 후히 드려야 합니다. 또한 진주를 받아야 할 우리에게 베푸신 과분한 사랑을 인하여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계속적으로 주어지는 은혜를 항상 감사합니다.

### 3. 선물을 받은 우리는 무엇으로 감사해야 할까요?

첫째, 우리의 입술로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말과 찬송으로 주님을 높입니다

둘째, 마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항상 감사하는 사람은 점점 더 그 마음이 넓어지고 감사할 제목이 더 많아집니다.

셋째, 섬김으로 감사의 생활을 합니다. 받은 것을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그리고 그의 교회에 충성하게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말로 다할 수 없는 많은 선물을 받은 우리는 날마다 입술과 마음과 생활 속에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진 바 모든 것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비록 어렵고 힘들더라도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을 돌아보며 우리 가족 모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곧 베푸신 모든 선물을 인하여 감격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 1. 선물을 주신 분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가진 것 중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풍성한 선물을 주신 분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임을 생각할 때 우리의 가진 바와 누리는 바 모든 것에 대한 감사를 형언할 길 없읍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심 같이 우리에게 후사로서의 특권을 누리게 하시고 유업을 이을 자로 삼으셨으니, 우리는 천국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부한 자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날마다 큰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지은 죄를 다 사하시고 영원한 자유를 주셨으며 지체로 삼으사 하나님의

# ▶ 사명자대회 안내 ◀

## < 기도제목 >

1.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여기에 보냈사오니 우리를 통해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하소서.
2. 믿음으로 전도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나의 형제, 골육 친척의 혼을 불러 주의 전을 채우게 하소서.
3. 잃은 양들을 찾게 하옵시고 이해가 가기 전 각 기관마다, 다락방마다 배가 되게 하옵소서.
4. 빛을 잃고 어둠에서 헤매는 지역 사회와 소외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소서.
5. 믿음, 소망, 사랑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의 일터에서 근면과 정직, 성실과 기쁨으로 일하며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게 하소서.
6. 하나님의 살아 계신 말씀이 흥왕되고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가 폭발되어 서울교회와 한국교회에 부흥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 2020년까지 민족의 75%가 구원받게 하소서.

**주 제 :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복음의 제사장 되게 하소서 (롬15:16)**  
**표 어 : 기도의 파수꾼 · 전도의 사도가 되자!**  
**주제찬송 : 263장 - 예수 말씀하시기를**

## < 행동강령 >

1. 부흥과 성장이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한다
2. 민족과 국가를 위해 기도한다.
3. 일치와 증거가 있는 삶을 산다.
4. 내가 먼저 변하고 세상을 변화시킨다.

## < 조 직 >

- \*대회장 : 이종운 목사
- \*지 도 : 이규정 목사
- \*본부장 : 왕경래 장로
- \*진행분과 : 하영수, 신용식, 오형철, 이태상, 이복규, 이연숙, 최형열, 우지원, 김은태, 김현정, 박태규, 유형식, 최양진, 유을상, 임옥균, 이보우, 임광식, 박한옥, 김정란, 이영자, 강희자, 이순례, 김정희
- \*홍보분과 : 민순구, 김규태, 임상현, 장양일, 유은경, 각 선교회- 전도회 홍보부장
- \*전도분과 : 최중시, 서춘식,
  - 1전도대: 이상득, 박태규, 김경희
  - 2전도대: 정운돈, 유형식, 이순례
  - 3전도대: 고경선, 최양진, 강희자
  - 4전도대: 이규정, 유을상, 이연숙
  - 5전도대: 이상득, 임옥균, 이영자
  - 6전도대: 정운돈, 이보우, 김정란
  - 7전도대: 고경선, 임광식, 박한옥
- \*기도분과 : 윤찬오, 조경식, 김세재, 김영주, 박두영, 최용길, 권사회 임원, 각 전도회-선교회 부회장
- \*교육분과 : 이영기, 오광환, 김시환, 전용순, 권장환, 최일춘, 최양진, 김숙자, 마상수, 이은희, 이태원, 김윤자, 박병수, 전수자, 이학주, 권순단, 최차순, 김에환, 김재술, 이영희, 이동만, 손재겸, 김현영, 남태순, 김인수, 이태상, 류중관, 황정욱, 신순우, 박두영

## 2002년 서리집사 임명작업 시작되다

2002년도 서리집사로 임명받을 대상 선정 작업을 시작하였다. 교역자회의 추천으로 당회의 심의를 거쳐 신임 서리집사 후보는 통지문을 받게 된다.

신임 서리집사는 소정의 교육과 문답을 거쳐 12월 첫 주에 임명을 받는다.

우리교회의 서리집사는

- ①남-여 30세(1972년 생 포함) 이상된 자
- ②입교인으로 흠없이 3년 이상 경과한 자
- ③각 부서 및 지회에서 교회 봉사경력 1년 이상된 자
- ④신행이 복음에 합당하고 봉사에 모범된 자 (딤후 3: 8-13 해당자)
- ⑤타 교회에서 이명해 온 자 중 직분자일 경우 본교회 등록 1년 이상된 자 (2000년 12월31일 이전 등록자)여야 한다

## 당회원 무지개 회원 봉사제한 해제된다

교회설립 후 10년간 성도들에게 봉사의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 전도회 또는 선교회를 비롯한 봉사 부서에 당회원과 무지개 회원이 회장의 직무를 맡지 않기로 하여 교회 화합에 크게 이바지한 바 있다. 그러나 교회가 대형화 됨에 따라 일꾼이 필요한 터라 이를 해제기로 당회는 결의하였다.

## 주부와 가족 건강

### 이운진 권사(4교구)

주부는 가족을 구성원으로 하는 공동체의 살림살이를 주관하는 안주인이다. 과거의 주부들은 대가족의 식사, 청소, 빨래 등 노동으로 '주부습진'이 상징처럼 되었지만 현대의 주부들은 생활정보, 자녀들의 전과목 공부와 사춘기, 남편의 건강까지 책임져야 하므로 '주부우울증'으로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현대적 현모양처는 다양한 정보의 습득을 요구한다.

### 1.나이에 맞는 주부의 모습이 아름답다.

신혼 시절 잉태와 출산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직접 참여하는 주부의 모습, 건전한 육아를 위해 책도 보며 아이들과 씨름하며 학부형이 되어서는 자신을 가꾸는 주부, 자녀의 결혼과 남편의 건강도 챙기는 주부의 눈가의 주름, 은퇴한 후 남편과 오솔길을 걷는 주부의 모습들은 너무나 아름답다. 요즘은 너무 나이에 비해 젊어지려고 날씬해지려고 애쓰는 모습보다 세월이 알맞게 순응하며 늙어가는 것이 자연미의 극치이다.

### 2.주부는 가정의 건강을 책임진다.

크리스찬의 건강은 '영적건강'을 바탕으로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 상태를 의미한다. 가족 건강을 책임지는 주부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

\*주부는 자신과 가족건강을 위해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지혜를 가져야 하고 자신을 위한 투자에 적극적이어야 한다.

\* 남편에게는 스트레스를 덜어주는 어진 여인(잠

12:4)이 된다.

\* 아이들 건강은 6세까지의 식사가 평생건강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며 밝은 가정환경을 제공하고 엄마의 손맛으로 인스턴트 식품중독을 예방한다.

\* 수험생에게는 1일 3식을 지키고 기민한 두뇌활동을 위해 80% 만족감을 원칙으로 하며 간식으로 두뇌회전을 유지한다. 아침은 가능한 밥을 중심으로 5대 영양소를 고루 섭취토록 하고, 황설탕을 넣은 커피를 가끔 이용하여 뇌의 각성작용과 피로감을 제거한다. 수험시 초콜릿은 정신적 육체적 기만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나 평소 과량 섭취는 금물이다.

기상 후 2시간이 지나야 두뇌가 효율적 상태가 되므로 '일찍 일어나 가벼운 운동을 한 후 아침식사를 든든히 먹는 습관'이 비법이다. 시험당일 평소와 다른 시도(별식, 청심환)는 금물! 미리 테스트하여 습관을 만들어두는 것이 필요하다.

### 3.현숙한 여인

의식보다 집에서 떡을 때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눌 수 있는(행2:46) 환경을 만드는 현명한 주부가 되어야 성인병도 예방하고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 여성적인 것이 이 사회를 이끄는 주부의 힘이다. 잉태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깊이 동참하며 남편과 자녀를 잘 돌보고 교회를 잘 섬기다가 주님의 성결한 신부로 설 때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주부는 아름답다. 건강하고 부지런한 현숙한 여인이 되도록 부단히 기도하고 노력하자.

# 교회도 새벽에 작전을 한다(?)

유관모 성도(2교구)

저는 지난 4월 29일, 탁경준 집사의 소개로 난생 처음으로 교회를 방문하게 됐.

58년만에 기독교인으로 등록하면서 지금은 존경하게 된 이종윤 목사님과 함께 사진 찍는 영광도 가졌다. 등록한 지 한 달쯤 지나서 '홍해작전'이 시작되었다. 교회도 심신을 단련하고 긴장감을 높이기 위해 새벽에 작전을 하나보다. 그런데 홍해라니! 홍해는 내가 1980년도 사우디아라비아 건설 현장에서 일할 때 본 폭 360미터, 길이가 2300킬로미터의 길이가 아주 깊은 산호초가 숨쉬며 자라는 바다인데 그곳에서 작전을 하다니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새벽 4시 꽤중시계 소리에 일어나 샤워를 하고 흥분과 호기심의 작전에 참가하였다. 4시 40분에 교회에 도착하니 미리 온 성도들이 본당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작전이라면 자리가 중요한데 언뜻 머리에 떠오르는 귀절-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을 생각하고 얼른 본당 우편쪽으로 가서 자리를 잡고 앉아 기도를 하다보니 하나님께서 어느 쪽을 보고 앉아 계신지 잘 알 수가 없었다. 어쨌든 흰 가운을 입은 찬양대가 우편에 앞에 앉아 들려주는 찬양으로 내 가슴은 뜨거웠다. 어느 날 연로하신 할머니. 할아버지 찬양대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를 들려 줄 때에는 바로 여기가 천국 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목사님께서 '아브라함은 배우자라는 설교를 하신다 길래 미국 16대 대통령 링컨에 대해 기독교가 가르치는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이 아브라함은 100세에 아들을 낳은 정력이 좋은 무당의 아들로 우상을 섬긴 자라는 것이다. 부인 사라는 도대체 몇 살에 애를 낳은 건가 하고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큰 소리로 '믿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씀하시기에 그냥 믿기로 했더니 얼마나 머리 속이 편한지. 믿고 나니 그렇게 편하고 자연스러울 수가 없었다.

제가 교회를 나오고 확실히 달라진 것이 몇 가지 있다.

첫째, 개인적인 혁명공약이지만 주일날에는 반드시 교회 출석하여 예배를 드린다. 전에는 일요일이면 친구들과 운동하러 나갔다가 목욕하고 맥주 한 잔하고 낮잠 자면 최고의 휴일을 보낸 것으로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것은 영적 즐거움이 없는 반쪽 짜리 즐거움에 불과했던 것이다.

둘째, 모든 일에 자신감이 생기고 기도한 후 결정한 일에 절대 후회하지 않게 되었다.

셋째, 교회에 나오기 부터 목사, 장로, 집사, 권사님들을 우리리보게 되었다. 예전에는 주위 친구들에게 '님' 자를 붙이지 않고 존경심을 가지지 않았으나 이제는 아무리 나이 어린 분이라도 직분자에게 '님'을 붙여 존경을 표한다.

넷째, 새가족부에서 배운 대로 예배 전 10분전에 기도로 준비하고 헌금은 미리 정성껏 준비하여 봉투에 넣어 두었다가 두 손으로 드리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내 인생에 새로운 스승을 한 분 만나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이종윤 목사님을 만난 것이 감사하고 좋은 성도들과 함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리라.

- 본문은 새가족부 흥커망데이에 있었던 새가족의 간증을 옮긴 것임-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 기독교방송(HLKK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 30분
- 인터넷방송 (· C3 TV - <http://c3tv.co.kr> · 호산나넷 - <http://hosanna.tv>) 주일 설교

##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사명자 대회를 위하여
2. 목회자세미나, 성경대학, 경로대학, 주부대학을 위하여
3. 병상에 있는 환자들을 위하여
4. 국가의 안정과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위하여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 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명절이 다가오면 고민에 빠지는 크리스찬들에게 던지는 제언 -

## 필요조건과 충분조건

김광신 장로(12교구)

수확시간만 되면 귀가 많도록 듣고 외우고 풀어본 내용이 필요조건이 성립될 때 또는 충분조건이 부합될 때 해석하라는 것이다.

가을이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행사가 추석명절인데 신자들은 이 행사를 치르기 위해 고민에 쌓이게 되고 아픔을 경험하게 된다. 매년 조상의 묘에 찾아가고 가족끼리 모여서 하나됨을 확인하는 절차는 필요조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평소 때의 10배가 넘는 교통혼잡을 뚫고서라도 고향을 향해 앞으로 가고들 있다. 가족의식 형제 관계의 깊이를 위해서는 명절 때 뿐 아니라 기회가 닿는 대로 만나고 돕고 위로하는 일이 필수적이어야 하고 어떤 의미에서 가족개념의 성취를 위해서는 필요조건이 충족을 사명으로 여기는 동양적인 관습으로 볼 때 금년에도 또 한번 치루어야 할 홍역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필요조건이 충족만을 위해 습관적으로 고향 가는 길에 나서거나 사전에 만족할 만한 계획과 준비 없이 움직였다가 후회와 허탈감으로 귀경길에 오르지 말도록 금년만이라도 세롭게 설계도를 그려보자는 것이다. 만나면 반갑고 기쁘고 떨어질 줄 모르는 가족의 정을 끈끈하게 이어갈 수 있는 충분조건이 없는 것은 아니다.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지혜와 명절이 한이 없으므로 금년 추석명절은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될 수도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친척식구들 중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가족이 있을 경우 미리부터 전도의기회로 삼을 결심을 하고 걱정기도가 선행되어야 한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인정할 진 내 그를 위한 간절한 기도가 없을 수가 없다. 지금부터라도 걱정기도를 시작해보는 것이다.

또한 몸과 마음을 바치고 물질까지 쫓겨가면서 나누어주는 희생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물질 가는 곳에 마음가는 법이니 자기를 위해서는 절약했다가 친척을 위한 풍성한 선물 공세로 예수 믿는 자의 냄새를 풍길 필요가 있다고 본다.

친척 식구들 중에 어른이 못되고 발언권이 중하위권에 머물 수밖에 없을지라도 침묵으로 일관하여 타이밍을 읽기보다는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하여 주도권을 행사하는 기회로 삼도록 한다.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진행하면서 모두를 기쁘게 해드리면서 예수를 증거 하는 기회로 삼고 예수 믿는 내가 가장 믿을 만하고 인정받는 자임을 믿게 하여야 한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명절이 되도록 지금부터 수확공부와 믿음 생활에 자기를 투자해보자.

▶ 경건한 예배를 위하여 성도들께서는 휴대전화기의 전원을 끄고 예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기는 유아부실(402호, 403호)에서 별도의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맡기시고 예배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동정

■ 박정선 집사 ( 할렐루야 찬양대 지휘자) 호주의 멜버른에서 열리는 세계현대음악제에 초청받아 9월 25일 출국

■ 이사: 김성규 집사 문혜진 성도 성남 12교구로 이사

☞ 금주 식사제공 가정 : 이관규 집사 이순영 집사 가정 (은혜중에 장례를 마치고)

☞ 목회자세미나 간식제공 가정: 인태균 목사 (목양장로교회) - 고구마순 1가마

### 교회약도 :



대치역 2번 출구로 나와 도로로 5분 거리